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함평군

함평군 국화동호회, 국화분재 교육 '한창'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화동호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에 한창이다.

2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5기 회원 200여 명이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국향대

전’에 개인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국화분재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국화동호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반 등 각각 4개 반으로 나뉘어 3주마다 국화분재 만들기, 취미 국화 기르기 등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전남 함평=나성주 기자 nsj3983@

담양군, 돌발해충 방제 작업 팔 걷었다

자체방제단 3개조 방제작업 투입

담양군이 최근 계속된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의 돌발해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흰불나방은 버즘나무, 뽕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유충이 어릴 때는 실을 토해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서 잭아 먹다가 이후에는 잎

전체에 피해를 주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 나무로 옮겨가며 빠르게 피해를 확산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이에 담양군은 유충발생 2학기 도래에 따라 자체방제단 3개조를 투입해 가로수, 공원, 산림의 왕벚나무 등 활엽수류 약 3000여 주의 방제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전남 상반기 인구 1만명 빠져나가

10대, 20대 인구 순유출 가장 많아

올 상반기 광주는 1000여명, 전남은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출됐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 1001명, 전남 9799명이다.

광주지역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719명), 20대(-823명)는 순유출됐고, 30대(337명), 40대(185명)는 순유입됐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3727명), 서구(-2263명)는 순유출됐고, 동구

(1412명), 남구(1645명), 광산구(2094명)는 순유입됐다.

전남지역을 연령대로 보면, 10대(-1038명), 20대(-6627명), 30대(-1367명)는 순유출됐고, 50대(497명), 60대(507명)는 순유입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5208명)이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1429명), 구례(-702명), 해남(-623명), 화순(-484명), 영암(-443명) 순으로 순유출됐다. 반면 순천(1천144명), 나주(843명), 고흥(39명)은 순유입됐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전남교육청, 2학기부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확대

전국 최초

전남도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121억 확보
정부 계획보다 무상교육 2년 빨라

농어촌 학생 에듀택시 운영 확대
사립유치원 원아 급식비 지원

올해 2학기 시작과 함께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가 확대 시행된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부터 전남도내 전체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또 농어촌 학생에 대한 에듀택시 운영이 확대되고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도교육청은 지난 1학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실현한데 이어 2학기에는 고 2, 3학년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계획보다 2년 빠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고등학생들이 수업료 전액,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지난 6월 도의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관



전남도교육청 전경.

/뉴스시

련 예산 121억 원을 확보해 냈다.

지난 5월부터 전남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인 에듀택시도 9월 개학과 함께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지난 4개월 동안 운영한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근 에듀택시 확대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에듀택시는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 중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1개 시·군에서 131개 학교 709명이 에듀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입되는 에듀택시는 276대이며 7억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억3200만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력사

업으로 추진된다. 9월부터는 또 전남지역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93개 사립유치원의 만5세 원아 2822명이며, 이들에게는 한 끼당 2200원 썩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예산은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됐다.

교육청은 전액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비 지원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데 이어 올 1학기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고교 신입생 수업료·학교 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다자녀가정의 학생교육비 지원 등 무상교육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한다는 당위 아래, 한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를 이뤄가겠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삭막한 측벽, 자연 풍경으로 ‘새 단장’

진주폴리텍 재학생들 재능 기부
망경동 지하철도에 벽화 디자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이하 진주폴리텍) 광고디자인과 재학생들이 진주시 주관 ‘제7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에 참여해 여름방학기간동안 벽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주폴리텍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자율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여 공공시설물·벽면 등 지역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찾아 벽화 디자인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적인 재능기부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공공디자인 봉사장소로는 망경동 지하철도 평면교차로에 위치한 60m에 달하는 긴 측벽면이 선정되었다.

벽화봉사에 참여한 광고디자인과 교수 및 재학생, 그리고 진주시민들은



진주폴리텍 광고디자인과 학생들이 그린 벽화

‘자연으로의 복귀’를 컨셉으로 약 30일간 한여름 뽕약벌 무더위 속에서 빛나는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봉사에 참여한 광고디자인과 김00 학생은 “무더위 속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교수님·친구들과 함께 삭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나눔의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단장으로 위촉된 광고디자인과 권미경 교수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곳곳에서 생동감을 주는 ‘디자인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진주=류광현 기자 news24@

오늘의 날씨

8월 22일(木)

음력 : 7월 22일

수도권 날씨

30 ~ 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3 | 해질 / 19:16

백령도 21/26

파주 21/30

연천 21/30

동두천 22/29

가평 20/29

서울 23/30

인천 23/28

수원 23/29

양평 22/31

용인 23/29

평택 23/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농기원, 김장채소 모종·씨앗 도시민에 무료 제공

김장채소 모종나누기 행사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4일 수원 탑동시민농장에서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수원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김장채소 모종나누기 행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이날 직접 선별한 구역배추, 무릉배추, 반청무, 게절무, 뿌리갓 등 다양한 김장채소 모종과 씨앗을 도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토종채소는 오랜 기간 우리 토양과



반청무

/경기도

/경기도

입맛에 적응한 먹거리로, 다양한 유전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성, 맛 등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종배추는 특유의 갓 향이 있고 조직이 단단해 김치를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한다. 게절무는 이천과 여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최근에는 잎을 이용한 시래기, 씨앗을 이용한 기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도 농기원은 토종채소 자원을 수집 발굴해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채소를 중심으로 채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